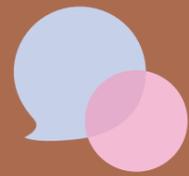


2022년 11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인공 지능의 언어 실력을 가능하는 방법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앞뒤 문장의 맥락을 생각하고 연결해요 11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채만식 소설 둘러보기 13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훈민정음 해례본” 쉽게 알아보기 15쪽

국어 바라보기_뉘은 말, 다른 뜻
‘지양’ 과 ‘지향’ 17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7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점자와 묵자 19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꼭 필요한 내용은 생략하지 말아요! 23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정한 소설 둘러보기 25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다니엘 린데만, 국외 한국어교원 홍보대사 위촉 27쪽

국어 바라보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천냥 빛을 갚을 말 29쪽

국어 바라보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한국어 교육은 ‘너’와 ‘나’를 잇는 이름터입니다.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51쪽





인공 지능의 언어 실력을 가능하는 방법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김소희



‘언어’는 사람이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이다. 언어로 부호화하고 언어를 해석하여 소통에 이르는 과정은 언어와 세계에 관한 각자의 지식과 가치관, 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어를 이용하여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인공 지능이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하고 언어로 표현(자연어 생성, Natural Language Generation)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인공 지능 언어 처리 분야 연구자들의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처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 지능이 사람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이 글에서는 자연어 이해와 생성 분야의 대표적 과제와 평가 지표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준비 중인 인공 지능의 언어 능력 평가 체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자연어 이해 과제의 예: 자연어 추론

나에게 닮친 상황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미 이해의 첫 단추이다. ‘자연어 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과제는 자연어 이해 분야의 대표적 과제로 배경 텍스트(전제)가 참일 때 주어진 텍스트(가설)의 참/거짓 관계를 추론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소희와 소희 동생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를 통해 “소희는 매일 커피를 마신다.”가 참임을 추론해 내는 논리적 함의에 대한 판단부터 “소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를 통해 상식을 활용하여 “소희는 어제 커피 잔을 사용한 적이 없다.”가 거짓임을 추론하는 상식적 함의 판단까지 포함한다.

[함의 관계 추론 데이터 세트의 예]

```
[
{아이디: 1,
문장1: "소희와 소희 동생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문장2: "소희는 매일 커피를 마신다.",
질문: "문장 1이 사실이라면 문장2는 사실인가?",
정답: "참"},
{아이디: 2,
문장1: "소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문장2: "소희는 어제 커피 잔을 사용하지 않았다.",
질문: "문장1이 사실이라면 문장2는 사실인가?",
정답: "거짓"},
...
]
```

자연어 이해 과제는 문제와 정답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로 구현된다. 즉, 인공지능이 문제의 정답을 맞혔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로 치환되며 일반적으로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 평균을 활용한 F 점수(보통 F1 점수)로 성능을 평가한다. 정밀도란 k로 예측한 모든 사례 중 실제로 k인 것의 비율이다. 재현율이란 정답이 k인 모든 사례 중 실제로 k로 예측한 것의 비율이다.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할 수 있다. F1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높다고 해석한다.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계산 예]

| | | 예측 결과 | | | 재현율 |
|----|------|------------------------|------|------|-------------------------|
| | | 참 | 거짓 | 모르겠음 | |
| 정답 | 참 | 15 | 10 | 100 | $15/(15+10+100) = 0.12$ |
| | 거짓 | 10 | 15 | 10 | 0.43 |
| | 모르겠음 | 10 | 100 | 1000 | 0.90 |
| | 정밀도 | $15/(15+10+10) = 0.43$ | 0.12 | 0.90 | |

※ '참' 범주의 F1 점수 계산

$$2 \times \frac{0.43 \times 0.12}{0.43 + 0.12} \approx 0.19$$

○ 자연어 생성 과제의 예: 문서 요약 과제

많은 분량의 언어 자료를 잘 이해한 후 짧게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이해와 표현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요약’은 자연어 생성 분야의 대표적 과제로, 긴 글에서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얻어 내기를 원하는 실용적 요구에 힘입어 더욱 관심을 얻고 있다. 요약 과제 역시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본문(Source Document), 정답 요약(Ground truth Summary)이 포함된 데이터 세트로 구성된다. 아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요약 데이터 세트인 시엔엔/데일리 메일(CNN/Daily mail)의 예이다. 여기서 개체명과 숫자는 모두 익명화되고(@entity, 000), 문장은 주석을 통해 구분된다.



[시엔엔/데일리 메일 데이터 세트의 예]

| |
|--|
| <p>Source Document</p> <p>(@entity0) wanted : film director , must be eager to shoot footage of golden lassos and invisible jets . <eos> @entity0 confirms that @entity5 is leaving the upcoming " @entity9 " movie (the hollywood reporter first broke the story) . <eos> @entity5 was announced as director of the movie in november . <eos> @entity0 obtained a statement from @entity13 that says , " given creative differences , @entity13 and @entity5 have decided not to move forward with plans to develop and direct ' @entity9 ' together . <eos> " (@entity0 and @entity13 are both owned by @entity16 . <eos>) the movie , starring @entity18 in the title role of the @entity21 princess , is still set for release on june 00 , 0000 . <eos> it 's the first theatrical movie centering around the most popular female superhero . <eos> @entity18 will appear beforehand in " @entity25 v. @entity26 : @entity27 , " due out march 00 , 0000 . <eos> in the meantime , @entity13 will need to find someone new for the director 's chair . <eos></p> |
| <p>Ground truth Summary</p> <p>@entity5 is no longer set to direct the first " @entity9 " theatrical movie <eos> @entity5 left the project over " creative differences " <eos> movie is currently set for 0000</p> |

일반적으로 사람의 글쓰기 활동을 평가할 때에는 ‘내용, 조직, 표현’과 같은 세부 기준과 각 기준별 평가 준거를 두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평가할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 자연스럽게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평가할 때에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모범 답안과 표면적으로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생성한 문장이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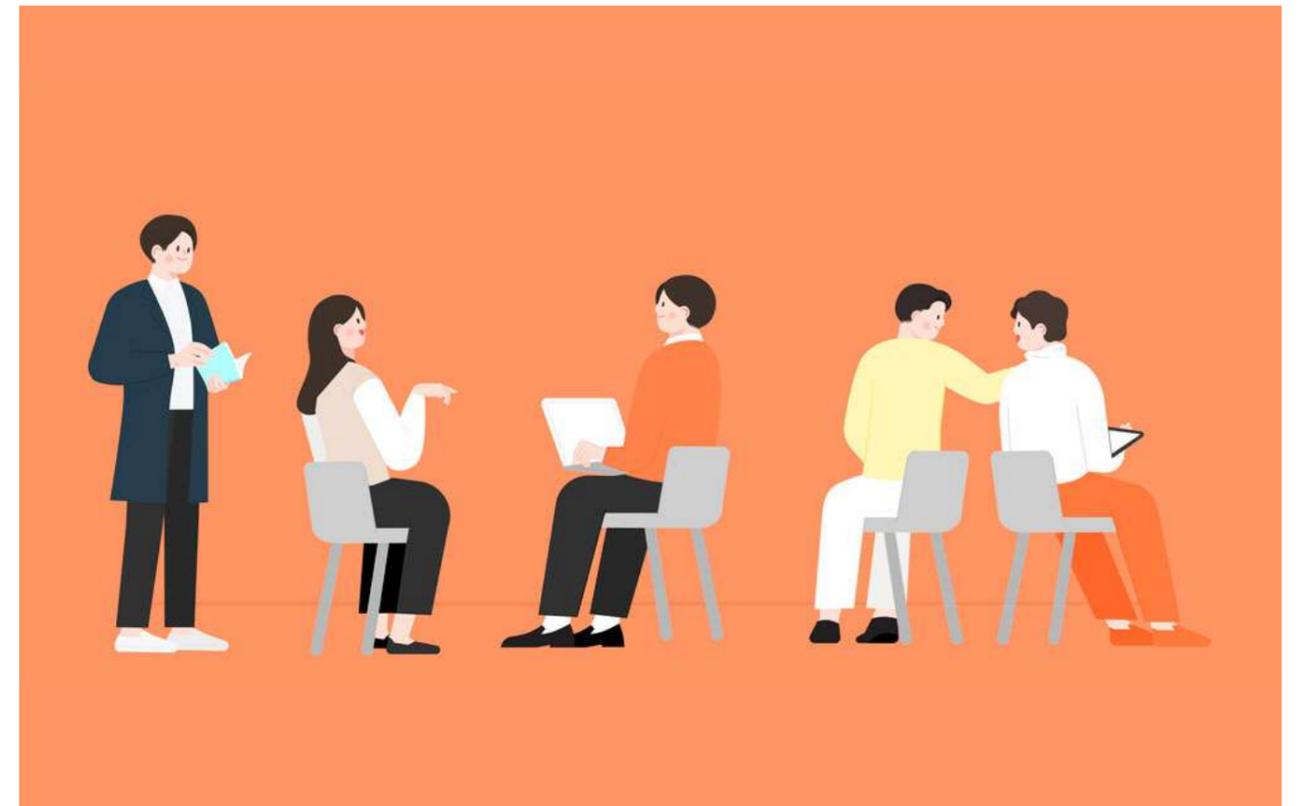
루즈 성능 평가 지표(ROUGE, Recall-Oriented Understudy for Gisting Evaluation)는 요약 과제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 공식으로 모범 답안과 모델 생성 답안 간 겹치는 표현을 엔그램(N-gram)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약 성능을 평가한다. 다만, 생성 모델을 평가할 때 표면적 유사성만 판단하는 것은 아래 예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아래의 예에서 모델 생성 답안은 작품의 유형, 작품의 제작 여부 등 중요한 정보가 모범 답안과 다르지만, 평가 지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생성 과제의 경우 여러 지표를 동시에 참고하거나 사람의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기도 한다.

[루즈 - 1 계산 예]

| | |
|----------|---|
| 모범 답안 | □ 영화는 △년 개봉 예정이다. [□, 영화, 는, △, 년, 개봉, 예정, 이, 다] |
| 모델 생성 답안 | □ 드라마는 ★년 촬영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 드라마, 는, ★, 년, 촬영, 예정, 으로, 확인, 되, 었, 다] |
| ROUGE-1 | 정밀도: 0.41 = 5(겹치는 1-gram 수)/12(모델 생성 답안의 1-gram 수) 재현율: 0.56 = 5(겹치는 1-gram 수)/9(모범 답안의 1-gram 수) F1 점수: $2 \times \frac{0.41 \times 0.56}{0.41 + 0.56} \approx 0.47$ |

○ 인공지능의 언어 실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조각들

지금까지 자연어 이해와 생성 분야의 과제 예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현실적 목표는 ‘모델이 실제로 사람과 같이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가?’라기보다는 ‘모델이 사람이 작성한 모범 답안과 유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에 가깝다. 또한,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에 대한 종합적 기준과 체계를 수립하고 각 기준에 맞는 평가 과제를 연구하기보다는 자연어 이해와 생성에 관한 부분적 관점을 반영한 데이터 세트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 한국어 인공지능의 기술적 구현 및 상용화 가능성에 기초하여 과제를 개발하는 것도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의 실질적 발전을 이끄는 한 방향일 것이다.



○ 국립국어원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은 2009년부터 연간 개최한 ‘국어정보처리 시스템 경진대회’를 2021년부터 ‘인공 지능의 언어 능력 평가’ 경진 대회로 개편하였고 자연어 처리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이나 평가 환경에서 데이터 세트는 훈련용, 개발·검증용, 시험용 데이터 세트로 분할된다. 훈련용 데이터 세트는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이 학습하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며, 사람의 정답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 또는 검증용 데이터 세트는 개발 중인 시스템의 적합한 파라미터 값을 찾는 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따로 떼어 둔 데이터 세트로서, 비유하자면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데이터 세트이다. 마지막으로 시험용 데이터 세트는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세트로서, 이 데이터 세트의 정답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공개 정답과 비교하여 산출한 점수만 순위표(리더보드)에 게시한다.

아래는 ‘2022 국립국어원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경진 대회의 ‘속성 기반 감성 분석’ 과제의 훈련용, 시험용 데이터 세트의 예이다. 훈련용 데이터 세트는 데이터 아이디(id), 분석 대상 문장(sentence form), 정답 주석(annot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용 데이터 세트에는 정답 주석이 빠져 있다. 참고로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이란 자연어 이해 과제 중 하나로 분석 대상 문장에서 나타나는 개체와 속성 범주를 식별하고 이 범주에 대한 후기 작성자의 감성을 추론하는 과제이다. 훈련용 예시에 따르면 후기 작성자는 본품(전자 기기의 본체 등)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 극성을 표현하고 있다. 경진 대회 참가자들은 시험용 데이터의 정답 부분을 [“제품 전체#일반”, “positive”]와 같이 채워 넣어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에 제출하며, 국립국어원에서는 비공개 정답과 비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표에 게시한다. 참가자들은 답안을 시스템에 제출하여 나의 순위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만든 모델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경진 대회용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데이터 세트의 예]

| 항목 | 내용 |
|-----|---|
| 훈련용 | { "id": "nikluge-sa-2022-train-00001", "sentence_form": "둘쨀날은 미친듯이 밝아봤더니 기어가 헛돌면서 틱틱 소리가 나서 경악.", "annotation": [{"본품#품질"}, {"기어", 16, 18}, "negative"] } |
| 시험용 | { "id": "nikluge-sa-2022-train-00003", "sentence_form": "간사하게도 그 이후에는 라이딩이 아주 즐거워서 만족스럽게 탔다.", "annotation": [] } |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체계를 구성할 때에는 대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과 성능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베이스라인 모델(baseline model)이라고 하며, 참가자들은 이 모델을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어떤 과제에서는 사람이 수행한 점수(Human Performance Score)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점수는 인공 지능 언어 처리 기술이 도달해야 할 목표 점수로서 의미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연 1회 개최되는 경진 대회 중심의 현행 체계를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이에 맞게 “모두의 말뭉치” 플랫폼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 매년 국립국어원이 공개하는 인공 지능 언어 처리 성능 평가용 과제가 쌓이고, 연구 개발자들은 상시로 답안을 제출하며, 자동으로 점수가 채점되어 순위표에 실시간으로 게시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국외 유명 데이터 세트를 참고하여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어의 특성과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말뭉치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구축하여 장기적으로는 인공 지능 언어 능력의 여러 측면을 다양한 과제로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를 이용하여 개발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와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문장 다듬기

**앞뒤 문장의 맥락을
생각하고 연결해요!**

국립국어원

수확물은 큰 배나 철로를 → 수로나 길로/큰 배나 열차를 이용하여 운송되었다.

수단으로서의 '큰 배와 경로로서의' 절로가 대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경로를 뜻하도록 '수로나 철로'로 수정하거나, 모두 수단을 뜻하도록 '큰 배나 열차'로 수정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유리한 곡선 형태의 기둥과 한쪽 벽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채우고 있음 → 한쪽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는 유리창도 특징적이다.

위 문장에서 고의 앞부분은 명사구이고, 뒷부분은 명사절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뒤 성분의 명제를 맞춰 주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뒷부분을 명사구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원래는 각기 고유한 지명을 지니고 있었으며 →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당시 이들 지역이 병합되면서 한자어로 된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위 문장에서 '각기 고유한 지명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과 일제 강점기 당시-한자어로 된 지명으로 변경된 사실은 의미상 대조적입니다. '·'은 나열을 뜻을 나타내므로, 대조 또는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립국어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심표, 마침표.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채만식 소설 둘러보기-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권연시리 지방 명칭하구 그러낭개
그 소리년 그러두 고가워서 남한티다가 들러씨우니라구!
(천하태평춘) 중

지역어 권연시리 → **대응 표준어** 관히

살펴보기

'권연시리'는 '관히'를 뜻하는 전라도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권년시리, 권년시리'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그래서, 곡이 그에서뿐만 아니지만,
그침저침해서 그는 승재를 만사맛감으로 끊고서
두루 유념을 해왔던 것이다.
(탁류) 중

지역어 그침저침 → **대응 표준어** 겸사겸사

살펴보기

'그침저침'은 '이러저러한 일을 아울러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겸사겸사'가 있습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이침저침'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햇바닥을 날름 꼬름 실룩 눈을 채구 오만 양냥이짓을 다 합니다.
(천하태평춘) 중

지역어 양냥이짓 → **대응 표준어** 입짓

살펴보기

'양냥이짓'은 어떤 뜻을 전하거나 무엇을 넘겨서 알려 주기 위해 입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전라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입짓'이 있습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양냥이, 양냥개, 양냥기, 양냥개'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채만식(1902~1950) 소설가는
전라북도 군산출신입니다.

소설 작품을 통해 당시 지식인 사회의 고민과
역경을 풍자하고,
사회 부조리와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레디메이드 인생>, <탁류(濁流)>,
<태평천하>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 쉽게 알아보기



한글(훈민정음)이 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읽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적혀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옮겨 적은 번역판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이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2008)”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문 원문을 쉬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고(번역자: 강신항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 현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실었다(번역자: 신상순 전남대 명예교수).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언어학적 가치와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서지적 특징을 해설한 두 편의 논문(1.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필자: 김주원 서울대 명예교수, 2. ‘훈민정음’ 제대로 이해하기, 필자: 이상익 서울대 명예교수)도 함께 실어 훈민정음의 의미와 가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2008년)을 누구든지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원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링크도 각각 제공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쉬운 한국어 번역판과 영어 번역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접속하거나, 누리집의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기타 자료’란에서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이라는 검색어로 찾아서 내려받을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쉬운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쉬운 영어 번역판으로는 세계인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자료는 반크의 ‘우리가 바로 21세기 한글홍보대사 누리집’ (<http://hangeul.prkorea.kr.com>)의 ‘훈민정음 해례본 소개’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쉬운 한국어 번역판과 영어 번역판을 통해 한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국내외에 한글의 과학성, 체계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양**해 주십시오.

지양이라고 하셨나요?

네,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 대화에서는
'지향'과 '지양'을 잘못 써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말합니다

2022년 2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
국립국어원 네트워크 환경 개선 작업으-
2022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 2022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이제는 잘 구별할 수 있겠죠?
더 궁금하다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향**해 주십시오."

↓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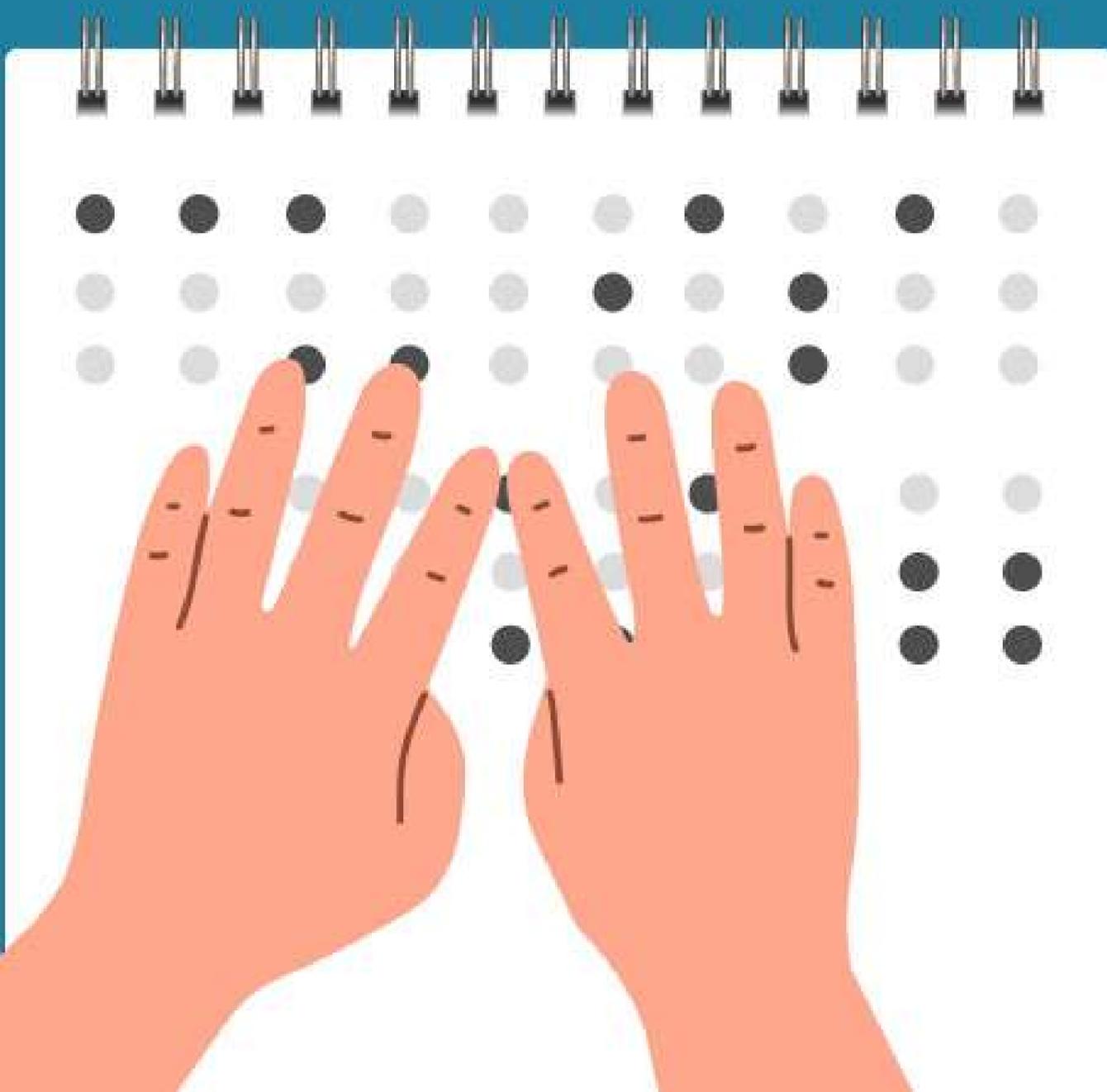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를 뜻하는 말이고, '지양'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앞선 대화에서는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향**해 주십시오."와 같이 써야 합니다.

바른 예

미래 **지향**적인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관계 **지향**은 긍정적인 적용 기제입니다.
무조건 비판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위법한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점자와 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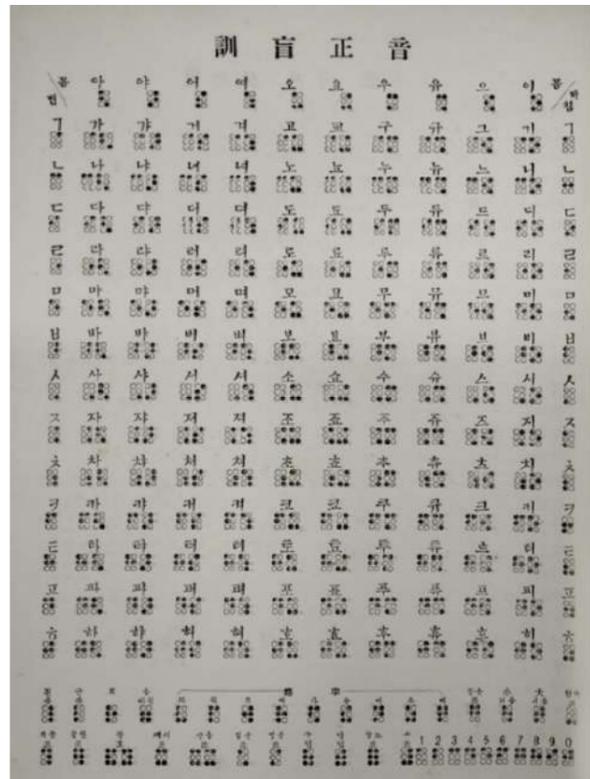
우리가 알아야 할 문자, 훈맹정음



훈민정음이라 하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이자 문자일 것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오늘날 한글이 되었다. 그렇다면 훈맹정음은 어떠한가? 훈맹정음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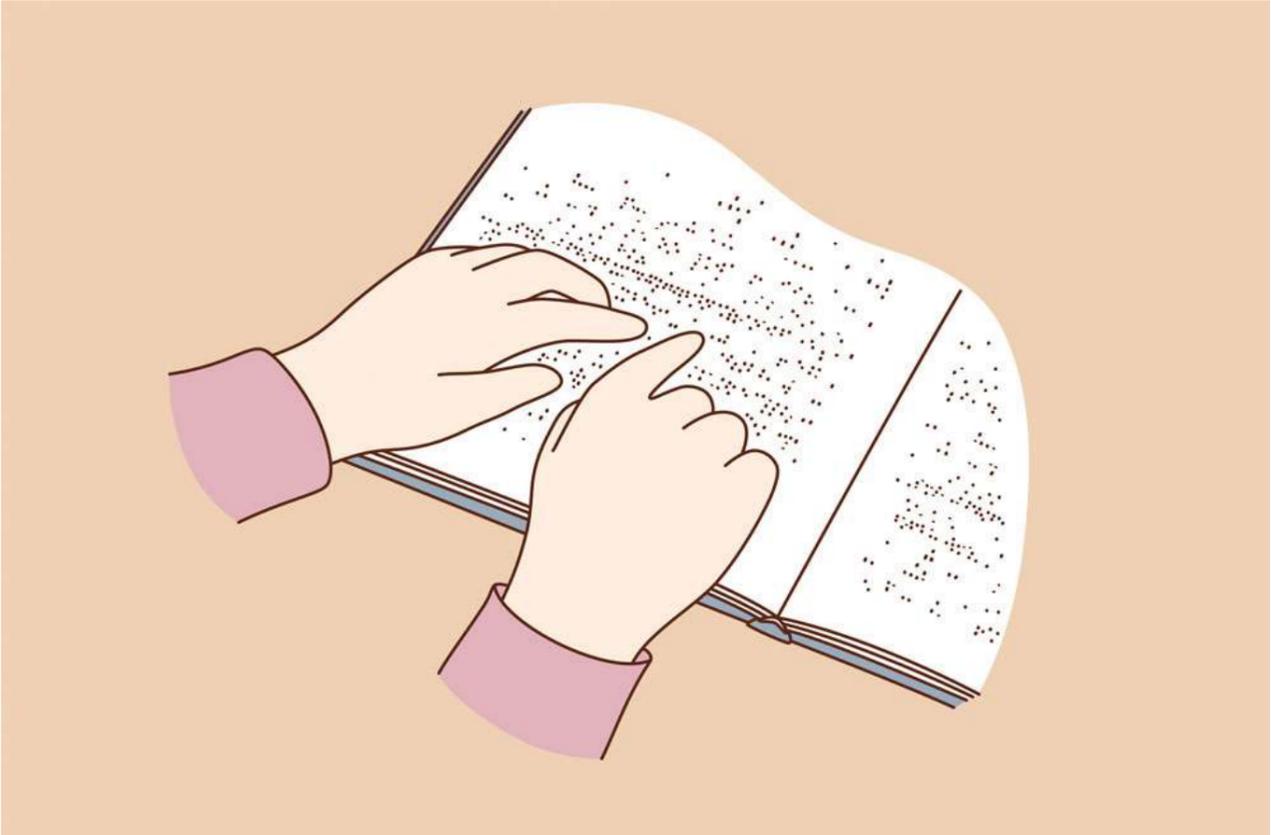


훈맹정음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 1923년 발표한 것으로,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이다. ‘훈맹정음’은 자음과 모음, 숫자도 다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예순세 개의 한글 점자로, 배우기 쉽고, 점 수요가 적고,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쓴 《맹사일지》에는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배우고 알기는 5분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나절에 지나지 않으며 4, 5일만 연습하면 능숙하게 쓰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소. 어서 바빠 점자를 배워야 원하는 대로 글을 읽게 되는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 점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훈맹정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다르게 제작되었다. 둘째, 점자에서는 초성 ‘ㅇ’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초성 ‘ㄱ, ㄷ, ㅂ, ㅅ, ㅈ’ 대신 된 소리표를 적는다. 넷째, 부피를 줄이고, 읽기와 쓰기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27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를 사용한다. 다섯째, 약자 ‘영’은 그 앞에 ‘ㅅ, ㅆ, ㅊ, ㅌ, ㅍ’이 올 때에는 ‘성, 썩, 정, 쩡, 칭’이 된다. 여섯째, 모음 겹글자 ‘애’는 ‘야+이’가 아니라 ‘야+애’로, ‘위’는 ‘우+이’가 아니라 ‘우+애’로 쓰고, 모음 겹글자 ‘왜’는 ‘오+애’가 아니라 ‘와+애’로, ‘웨’는 ‘우+에’가 아니라 ‘워+애’로 쓴다. 일곱째, 점자는 모아쓰지 않고 풀어쓴다. 예를 들면 ‘강’을 ‘ㄱ, ㅏ, ㅇ’으로, ‘숲’을 ‘ㅅ, ㅓ, ㅍ’으로 적는다.

한편 묵자(墨字)는 점자에 상대되는 용어로서 비시각 장애인이 읽고 쓰는 일반적인 문자를 가리킨다. 묵자는 점자와 달리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점자는 세로 6mm, 가로 4mm 정도로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묵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묶어서 한 영역에 나타낼 수 있지만, 점자는 한 영역에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점자책이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려면 줄과 줄 사이를 8mm 정도로 조정하여 반대면의 점자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자책은 묵자책의 3배 정도 분량이 된다.



지난 11월 4일은 한국 점자가 탄생한 지 96년째 되는 날이다. 작년 12월에 **점자법**이 개정되면서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고, ‘한글날(10월 9일)’,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은 ‘한글 점자 주간’으로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 점자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서 한글 점자를 향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대학자료 반납 시, **필히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 이용자가 대학 자료를 반납할 때 운영자는 반드시 연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시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수납한 후, → 연체 시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받은 다음, 운영자 누리집에서 반납 처리를 합니다.

위 문장에서는 대학 자료를 반납하는 주체와,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주체를 밝혀 적어 주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덧붙여 문장의 길이를 적절하게 나누고, 쉬운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7급 이하 직급 → **직급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 역량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은 직급이 아니라 직급이 7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므로, 위치를 고쳐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국립국어원

일정 규모 이상의 아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해야** →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 문장에서는 무엇을 '등록'해야 하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등록'의 대상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하므로, 해당하는 어휘를 추가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정한 소설 둘러보기-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들개는 오딘 걸음을 되돌려서 소리를 치며 비탈길을 더우잡았다.
(사하촌) 중

지역어: **더우잡다** → 대응 표준어: **더위잡다**

살펴보기: '더우잡다'는 '굳은 기반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더위잡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시어머니도 얼굴을 찡그리며, "그래 말이다. 그 성질에 또 불베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 목소리가 낮아지기 그런가 했지."
(수라도) 중

지역어: **베락** → 대응 표준어: **벼락**

살펴보기: '베락'은 '벼락'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비락', '벨락', '벵네'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낙동강이 넘는다지?" "구포 다리가 우투롭단다!"
(모래톱 이야기) 중

지역어: **우투롭다** → 대응 표준어: **위태롭다**

살펴보기: '우투롭다'는 '위태롭다'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우트롭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작가 정보

김정한(1908~1996) 소설가는 경상남도 통령 출신입니다.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사하촌>이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농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으며, 대표작으로는 <수라도>, <모래톱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국립국어원

다니엘 린데만, 국외 한국어교원 홍보대사 위촉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26일 홍보대사 및 명예 K-티처 위촉식을 개최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독일인 린데만 씨가 홍보대사가 되어, 한국어를 알리는 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어 학습자가 선생님이 되는 시대, 이제는 K-티처 시대

국립국어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나, 앞으로 가르칠 현지인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지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과정의 K-티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지의 자생적 한국어교육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서 K-티처 양성 과정(130시간)을 이수하고, 인터넷 기반 평가(IBT)로 종합시험을 합격하면,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K-티처 프로그램 수료증과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K-티처 프로그램은 2023년에는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2024년부터는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립국어원은 K-티처 홍보대사를 위촉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와이대 손호민 교수에게 그 업적을 기려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인 ‘국외 배움이음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줄리아 임패여 씨를 명예 K-티처로 위촉했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인 다니엘 린데만 씨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K-티처가 되어 자국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대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천 냥 빚을 갚을 말

이미향(영남대학교 글로벌교육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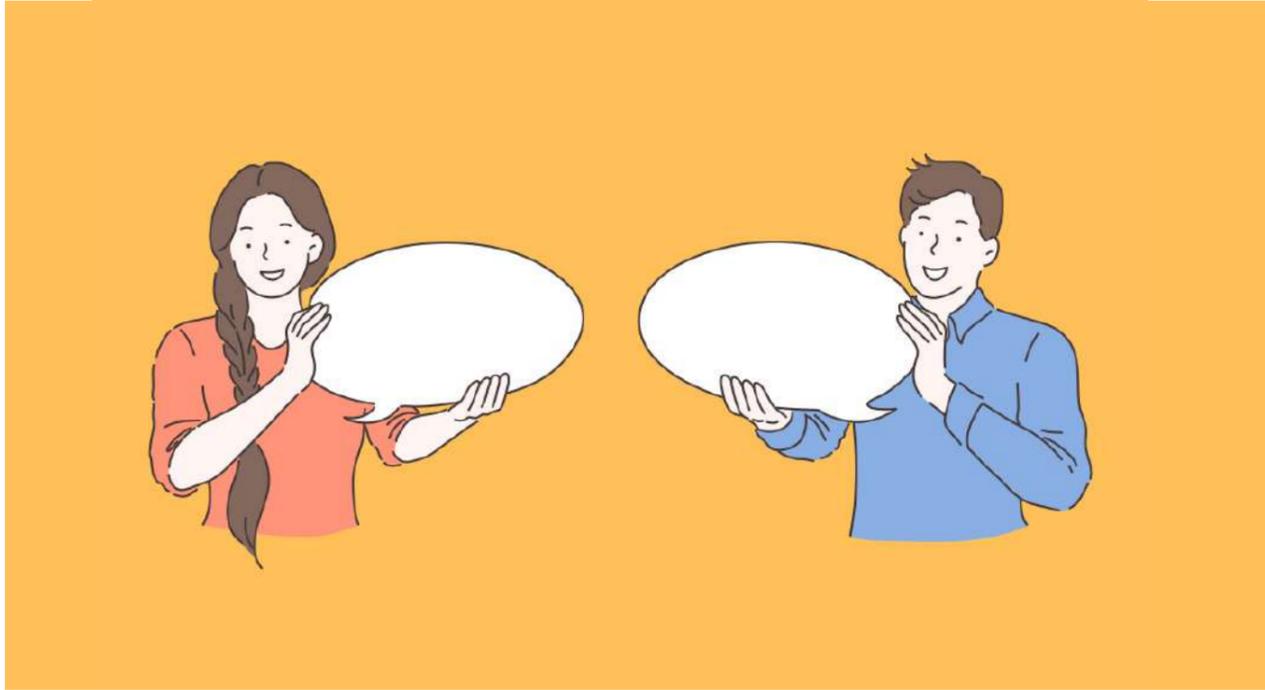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 온다’는 옛말이 있다. 말의 가치를 한껏 치켜세우는 표현이다. 그런 말 한마디를 두고 천 냥 빚도 갚을 정도라고 매긴다. 사극에서 흔히 들던 ‘냥’이라 익숙히 아는 말 같지만, 사실 한 냥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한 푼의 열 배가 한 돈이고, 한 돈의 열 배가 한 냥이다. 만약 국밥 한 그릇이 한 푼이라면, 한 냥으로는 국밥 백 그릇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천 냥이란 십만 푼으로, 오늘날 물가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된다.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말이라면 어떻게든 한번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짚어 볼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남을 움직일 만큼 힘 있는 말이란 듣기 좋은 말이다. 비지 사러 온 사람에게 두부를 사게 하고, 큰 빚을 면제해 줄 정도로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곧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물은 한 조사가 있는데, 자기 신상에 관한 것, 자기 이해에 관한 것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뒤를 이어 타인에 대한 험담, 취미에 관한 것, 자기만 아는 것이 있었다. 자기만 아는 것이란 곧 비밀이 아닌가? “이거 비밀인데□.”라고 하면 더욱 말하고 싶어진다고 하니 참 흥미로운 사실이다. 발 없는 말이 왜 천 리를 갔는지, 낮말과 밤말을 전한 새와 쥐는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 이처럼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철저히 화자 중심이다.

이와 달리,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물은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응답들이 나온다. 많이 나온 답은 자신의 행동에 필요한 정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칭찬 등이다. 한 유명한 이야기로, 칭찬에 무너진 나폴레옹을 만나 보자. 장군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신에게 아부하는 것을 염려한 나폴레옹은 어느 날, 전장에서 곧은 말만 하도록 엄중하게 일렀다. 그날 밤 한 장군이 나폴레옹을 찾아와 “아부를 싫어하는 지도자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더욱 존경한다.”라고 말한다. 그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 원칙대로 하면 엄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폴레옹은 오히려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사람이 필요한 정보이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말이라는 점이다.



화자로서 하고 싶은 말과, 청자로서 듣고 싶은 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의 이중성이 엿보인다. 설령 그렇더라도 위의 내용이 맞는 것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듣는 사람을 고려한 말을 할 줄 아는 화자가 훌륭한 화자인 것은 분명하다. 듣기 좋은 말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말 자체보다 말이 쓰이는 상황이 말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남의 상황을 내 기분으로 말하는 것이나, 타인의 사정을 단정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더욱 조심할 일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배워 갈 말은 자신을 보여 주고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도구이다. 인사말로 시작하는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표현을 주로 배운다. ‘영화를 보고 싶어요’처럼 원하는 것을 말하고, ‘비가 와서 집에 있어요’처럼 이유를 말하고, ‘맛있네요’처럼 감탄하는 마음도 드러낸다. 그 밖에도 경험과 목적을 말하고,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등 주로 삶과 직결된 것을 초급에서 배운다. 이런 표현은 범세계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그런지, “이 말을 언제 써요?”처럼 말의 쓰임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다.

그러다가 한국어 중급 단계에 이르면 사회적 상황 이모저모에서 쓰일 여러 표현들이 쏟아진다. 비교와 대조, 경고와 충고, 동의와 반대, 확인 등을 표현하는 말이 그것이다. 그중에는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런 법이에요’처럼 당위를 이르는 말, ‘늦기 일쑤예요,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등의 단정적인 표현들이 있다. 흥미롭게도 학습자들은 이런 특별한 표현에 관심을 보이며 상황이 되면 한 번쯤은 꼭 쓰려 한다. 특별한 어감이 인상적이었을 테고, 한편으로 자신이 중급 이상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하면서 사용 상황을 살피지 않는 경우이다. ‘원래 그러기 마련이죠’처럼 단정 짓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이가 있을까? 단정과 판단에 대한 표현이 필요할지라도, 이런 표현들은 무턱대고 쓰면 문법상으로 잘 맞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해친다. 또한, 외국어 간에는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어감이 다른 말들이 많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 학습자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마치 볼록렌즈 앞에 선 누군가의 모습과 같은데, 오히려 그 말을 잘 쓰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아 결국 오류가 발생한다.

말은 정확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알기에 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습자가 배워 갈 말 한 마디에 적절한 사용 상황과 인간관계를 담아 전한다. 한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실제로 말할 때, 그 말은 적어도 화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습자가 가치로운 말을 알고 적절하게 쓰도록 하는 것, 말의 힘을 믿는 한국어 선생님이라면 교실 문을 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일이다.



한국어 교육은 ‘너’와 ‘나’를 잇는 이음터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김강희 교수



《선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김강희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 그 안에서도 한국어교육학 문법론을 전공했어요. 우리 삶이 언어를 변하게 하듯, 언어 역시 삶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말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표, 마침표》

교수님께서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강희

저는 운동주 시인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시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었죠.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서 은사님이신 강현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덕분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론은 수행 앞에, 수행은 이론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한 외국 학자의 말이었는데요. ‘한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이 기존의 국어국문학 안에서의 세부 전공들과 달리 ‘언어의 사용’,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언어 규칙의 세계에서 균열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 균열이 오히려 의사소통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으며 한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심표, 마침표》

한국 대중음악과 한국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 한국을 향한 관심이 언어와 문자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세계 곳곳에 많은 학습자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혹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은 아닐는지요?

김강희

문화와 언어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복합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언어권마다 무지개의 색깔을 세는 개수가 다르든지, 동일한 동물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의 별칭을 연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그리고 문화가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드라마 콘텐츠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던 한류는 오늘날 음악이나 의상,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널리 전파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정체성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해외 학습자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초급 학습자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 도구와 현지 교원을 통해 초급의 장벽을 넘어서서 중고급 단계로 진입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한국어학당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자국에서 한국어 기초 학습을 마치고 바로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류의 위기에 대한 우려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지만, 파도가 그 세기와 모양이 다를 뿐 결국에는 멈춤 없이 일렁이듯이, 한류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그 양상과 성격이 다를 뿐, 국가의 장벽을 넘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정체성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해외 학습자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초급 학습자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 도구와 현지 교원을 통해 초급의 장벽을 넘어서서 중고급 단계로 진입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한국어학당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자국에서 한국어 기초 학습을 마치고 바로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류의 위기에 대한 우려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지만, 파도가 그 세기와 모양이 다를 뿐 결국에는 멈춤 없이 일렁이듯이, 한류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그 양상과 성격이 다를 뿐, 국가의 장벽을 넘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표, 마침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학습 과정에서) 주로 어떤 점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김강희

사실 학습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학습할 때 저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모국어의 간섭이나 전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학습자 개인 성향의 문제, 또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랍어 문화권에서는 한글 자모를 익히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한국어의 다양한 경어법 체계를 낯설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학습자들은 분절음이나 음운현상에서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나 불교 문화권인 미얀마 학습자들은 화행이나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러한 언어문화의 차이가 학습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글 자모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랍어권에서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문화 체험이 오히려 상당히 인기 있는 수업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인 원어민 교사의 발음 수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매력은 언어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 환경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은 언어 환경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의 이른바 ‘우리’라는 문화에서 비롯된 다정한 말의 규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언어 습관이 한국어에 깊이 녹아 있죠. 이러한 한국어 고유의 특성이 세계 곳곳의 학습자들을 사로잡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심표, 마침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자들은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요?

김강희

2000년대 초반부터 이십여 년 가까이 성장해 온 한국어교육은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가장 눈에겨볼 만한 성장은 바로 현지 교원의 양성인데요. 이전에는 한국인 교사가 해외에 파견되는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보급되었다면, 최근에는 현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모어로 삼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해외에 파견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지에서 현지인 교원이 한국어를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아졌어요. 보수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한국어 원어민 교사보다는 현지인 교원을 선호하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이런 현상에 주목한다면 국내 한국어 원어민 교사들과 해외 현지인 교원의 협업도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지정되면서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원어민 한국어 교사와 현지의 베트남인 교원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원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심표, 마침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능통한 것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수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김강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능통한 것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특성과 뉘앙스들도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소리를 내는 발음의 체계와 규칙도 언어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의 언어를 외국어로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특수성,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공손성의 여부까지도 규칙성을 찾아내어 교육의 영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지만’과 ‘-는데’, ‘-는 반면에’를 큰 고민 없이 학습하여 사용하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습자들에게는 ‘-지만’과 ‘-는데’, ‘-는 반면에’의 차이를 문법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담화, 즉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규칙화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국어의 규칙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가르치는’ 일은 교수법의 차원에서 다시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말씀을 드리고 보니, 한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들이 반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국어교육에서는 전통적인 국어학에서 연구해 온 언어 규칙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과학의 영역일 수 있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언어학 등의 영역까지도 접목하여 고민해야만 하는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현지 문화 등 지역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심표, 마침표》

한국어교육 못지않게 한국어 연구기반이 강화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국외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김강희

사실 한국어교육학은 이론과 사용이 맞닿아 있는 응용 학문의 특성상 이론 연구와 현장 교육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국어 교사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국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키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외 대학과 교육 기관에서도 외국인 한국어 전문가들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현지 교원이 국외에서 한국어학 및 한국학 관련 전공을 개설하거나 학술대회 등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면서 국내에서 유학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외 한국어 연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어교육 보급에서 소외된 지역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신남방이나 신북방 같은 지역은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의 보급뿐만이 아니라 현지 대학에서의 한국어 관련 전공 개설의 비율도 상당히 높지만, 아제르바이잔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등의 지역에서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사설 기관을 제외하고는 교육 기관이 부재하거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한국어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지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와 더불어 한국어 연구자로서 교육과 동시에 이론을 연구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에 대한 양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과 부산외대는 지난 8월에 국외 한국어 연구자를 대상으로 배움이음터 연수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는지요?

김강희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따라서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연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수회 교육과정의 개발 과 운영이에요. 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 연수회, 재외동포 교사 초청 연수회, 해외 파견 교원 연수회, 사회통합 교원 연수회 등 기존에 진행되어 온 한국어 교사에 대한 연수회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최상위 한국어 교육과정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에 기반하여 이번 연수회를 국외 한국어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회의 주안점이 연구 역량 강화에 있는 만큼, 연수생들의 연구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와 박사 도우미를 통한 5주간의 연구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기존의 교사 양성 연수회와 달리 이번 연수회에서는 연구 동향 특강과 연구 방법론 특강을 비중 있게 구성했죠. 연구 동향 특강은 에이아이(AI) 시대의 한국어교육학에 관한 내용으로 국외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최신 동향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연구 방법론 특강에서는 말뭉치 활용 방법론과 Praat 등 실험음성학적 방법론 특강을 제공해서 연수생들의 연구물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모든 연수생이 필수로 들어야 할 이론 강의와 별개로 개별 주제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 강의를 다양하게 제공했어요. 그 결과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분석 방법, 또는 Praat 등을 활용한 연구물이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표, 마침표**》 연수회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김강희

이번 연수회는 온라인 연수생과 오프라인 연수생들이 함께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주로 국내의 박사급 유학생들은 오프라인 연수생으로 참가하였고, 국외의 교수급 교원들은 온라인 연수생으로 참가했는데요. 그중에는 꼭 부산에 오고 싶어서 국외에서 국내로 먼 걸음을 한 연수생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연수생들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생활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연수회에 참가했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고독하게 학위과정을 밟고 있던 오프라인 연수생들이 대면 연수회와 대면 연구 지도에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스물아홉 명의 연수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물리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등을 통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해운대 마을, 광안리 마을, 기장 마을, 영도 마을, 송정 마을 5개의 마을을 형성하여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연수회를 지나온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차도 다르고 계절도 다른데 작은 줌(ZOOM) 화면 안에서 아기를 안고 참여하는 연수생들의 열정이 부산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고나 할까요.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민요를 배우는 문화 체험을 할 때는 온라인 연수생들과 오프라인 연수생들이 한목소리로 크게 민요를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과정에서 연수생들뿐 아니라 연구진까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쉽표, 마침표》

이번 연수회에 관해 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요? 또한 책임연구자로서 배움이음터와 관련하여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김강희

이번 연수회는 스물아홉 명의 온오프라인 연수생들이 참가를 했어요. 이론 강의, 특강, 주제별 세미나, 분임활동, 문화 체험, 교육 실습 등을 5주간 지원했죠. 수료 기준은 교육과정 이수 및 소논문 1편 제출이었는데요. 사실 5주라는 시간 동안에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한국인 연구자에게도 다소 부담스러운 목표일 수 있었지만, 선발 과정에서부터 연구계획서를 받고, 연수회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 중심으로 연구 지원에 초점을 두어 운영한 결과 연수생 전원이 학술 논문을 제출하고 최종 발표회에서 자신의 연구물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학술지 논문 투고처럼 익명의 심사위원 3인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5명을 선발하여 논문 우수상도 시상하였는데요. 모든 연수생들의 연구물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우수자를 선발하는 과정 역시 치열했습니다. 그중에서 연수회 성과물을 토대로 학술지에 투고, 게재하는 사례도 거둘 수 있었죠.

이렇게 연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국외 한국어 연구자 연수회는 체계적인 교육 실습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했어요.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각 과목의 담당 교수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국립국어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연수회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이뤄졌는데요. 이 같은 자원이 국외에서 한국어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다지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을 통해 한국어학, 그리고 한국어교육학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연수회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표, 마침표》

오늘날의 한국어 열풍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산외대 한국어교육학과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김강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는 부산 지역에서 학부부터 한국어교육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유일한 학과예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한국어교육을 해 왔고, 또 학교 차원에서도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대내외 사업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에서도 활용한 바 있는데,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하여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움이음터에서도 확장 가상 세계 워크숍을 통해 캠퍼스 투어를 하고, 국립국어원 전시실을 관람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한국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강점을 살려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서로에게 자신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며 소통하는 탄뎀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어요. 배움이음터에서도 생활과 학습을 돕는 한국인 조교들과 박사 도우미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한국인 모어 화자와 협력하여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한국어교육 개발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교육이라는 구심점으로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실험표, 마침표**》 국어교육 연구자로서 고심을 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교육은 사실상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거듭해 온 학문입니다. 후배이자 제자의 위치에서 바라보았던 한국어교육 선배들의 용감한 걸음이 아마도 저와 같은 후배 연구자들을 키워 낼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닐까요? 가령 국립국어원 누리집에는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 제공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가지 언어를 동시에 이중언어 웹 사전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두의 말뭉치 역시 다른 언어권의 말뭉치 구축 현황과 비교할 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단기간 안에 규모나 품질 면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고를 오랜 시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향후 한국어교육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체계와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에 애정을 가지고 임한 것도 이러한 저의 결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잠시 불다 그치는 바람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되고 있는 현장을 이해하면서도 표준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은 사용 앞에, 사용은 이론 앞에’라는 말이 어찌보면 불가능해 보이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지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험표, 마침표**》 한국어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강희

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어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떠나온 길이 곧 다시 돌아가는 길이 되듯, 한국어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밖으로 향했던 그 길이 결국에는 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동경,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한국어교육이 돌고 돌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사라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국외 한국어 교육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한국어 교육자라는 길이 결국에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다시금 생각하고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로 한국어 교육자로서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내 안의 너, 네 안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의 너, 네 안의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로부터 배우고 변화될 수 있는 한국어 교사, 정답을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언어와 문화의 세계에서 학습자와 함께 언어의 실체에 다가서는 용기를 가진 한국어 교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교사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한국어교육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너와 나를 잇고, 세계를 잇는 이음터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험표, 마침표**》 교수님과 부산외대 한국어교육학과가 앞으로 펼칠 일들이 궁금합니다.

김강희

먼저 부산외대 한국어교육학과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의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온오프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감수성이 높은 엠제트(MZ)세대의 성향에도 부합하는 방식이죠. 다만 이 경우 전통적인 교실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고, 중도 이탈자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는 온라인 교실을 확대하되,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학습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확장 가상 세계, 학습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한 소통 중심의 온라인 한국어 교실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와 함께한 여름의 뜨거움을 이어 나가고자,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석박사생들과 연구 모임을 통해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대조언어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하는 부산외대 한국학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학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껏 활발히 논의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언어화되지는 못했던 화행 대조에 대해 연구하고 저서를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국외 한국어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담론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마 올여름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에 참여했던 연수생들, 지도교수님과 박사 도우미들, 연구진이 모두 결이 비슷한 열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국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한, 부산에서 함께했던 여름날의 뜨거운 배움이음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웃음)

우리말 풀기

문제 1

일을 [하려면 / 할라면]
제발 집중해서 해 주세요.

정답 찾기 Q

문제 2

수입이 [째질해진 / 째질해진]
누나가 책상을 사 주었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시험을 [치르고 / 치루고] 나오자
마음이 가벼웠다.

정답 찾기 Q

문제 4

이름이 [뭐예요 / 뭐예요]?

정답 찾기 Q

문제 5

이 가구는 참나무로 [만듦 / 만듬].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1. 1.~2022. 11. 15.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12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 | | |
|-----------|-----------|-----------|
| 조*현(6742) | 박*우(1117) | 이*진(1374) |
| 고*숙(3148) | 백*서(1443) | 우*진(7201) |
| 진*민(6171) | 우*용(8992) | 하*현(4429) |
| 주*희(5149) | | |

우리말 풀기

문제 1

색시는 그저께인가 [그그저께 / 그끄저께]
왔다가 도로 갔어요.

정답 찾기 Q

문제 2

최 선생이 이래 [뵈도 / 뵞도]
이 분야에서는 소문난 실력자다.

정답 찾기 Q

문제 3

군대의 명령이 개인의 사유까지
[제제 / 제재]할 수는 없다.

정답 찾기 Q

문제 4

우리 과는 [매달 / 매월] 말일에 회의를 한다.

정답 찾기 Q

문제 5

나는 친구의 답과 나의 답을 [맞혀 / 맞춰] 보았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1. 15.~2022. 12. 5.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12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 | | |
|-----------|------------|------------|
| 고*석(8060) | 김*진(4723) | 양*화 (3730) |
| 옥*승(7357) | 정*현 (1275) | 김*기 (4039) |
| 조*구(4741) | 김*서 (6152) | 신*우 (6319) |
| 정*화(7147) | | |